복지회관 기공식 무산

예정된 착공일보다 늦은 내년 3월로 확정

가정대학관은 지난 29일 기공식

지난 1일 노천극장에서 열리기로한 복지회관 기공식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요청으로 취소되었다.

복지회관 기공식은 지난 9월5일 교수·학생 동반대회중, 조영식 총장의 "10월20일경 복지회관 착공에 맞추어 대동제 기간인 10월1일 기공식을 갖자"라는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실무 부서인 건설부와 총학은 기공식에 따른 제반 준비를 진행시켜왔었다. 기공식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9월30일, 박기동(영교·4) 학자추사 무국장이 건설부를 방문 복지회관 추진계획을 검토하는 도중 착공일이 당초 착공일과 다른 내년 3월1일로 나타난것을 밝혀내고 1일 기공식을 취소하기로 윤종군(사학·4) 부총학생회장과 협의한 학교측에 통보하였다.

교내 학생자치활동 공간의 부족, 복지시설의 낙후와 가정대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제기된 것이 복지회관 건립과 가정대 건물 신축이다.

이중 가정대 건물 신축은 92년 9월 착공, 93년 8월 완공으로 92년 등록금 협상에서 합의 되었으나, 지난 29일 내년 3월 착공을 주내용으로 하는 기공식을 갖고 일단락 되었다.

신축될 가정대학신축 건물은 일간교실과 시청각실 사이에 건축면적 1천7백평규모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어진다.

91년 10월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합의서에서 학교측은 92년 8월 완공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복지회관 도시계획심의중 의료원 노동조합 사무실의 용도변경으로 도시계획 심의서류가 동대문구청에 의해 반려되어 91년에는 복지회관에 따른 사업이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92년 등록금합의서 채택과정에서 총학측은 작년 10월의 합의서를 들어 92년 2학기 이전완공을 주장하였으며 학교측은 이를 허락하여 '92년 8월 완공'으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채택 이후 교수협의회, 건설 실무부서 등이 현실성이 없는 약속이라며 이의를 제기, 총학과 학교측은 지난 10월1일 까지의 복지회관 사업 진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6월13일 김만복 건설부장은 합의서 이행 위원회에 제출한 복지회관 신축공사 진행표에서 92년 9월 중순 입찰공고, 10월 중순 입찰을 통보

△경희 혜월드 창간호(9월1일지)에 복지회관 9월10일 입찰공고, 10월7일경 입찰이란 기사 게재

△복지회관 기공식 경과 보고자료에서 92년 12월중 건축허가 완료, 내년 3월 착공등의 내용 삽입

이상과 같이 복지회관의 공사일정을 살펴볼때 시일이 지날수록 공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0월1일자 경희 혜월드의 건설부장(교직원 소식)인터뷰에서 김만복 건설부장은 "건설행정은 학사행정, 일반행정과는 달리 사업의 시행시기가 불투명하다"는 발언과 같이 건설행정은 등록금 협상 당사자들이 제휴한 것과 같이 이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설일정의 지연은 실무담당 부서의 책임만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건설부 뿐만아니라 이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은 공사를 하루빨리 시작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에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통해 학생들이 갖게 될지도 모르는 학교에 대한 불신감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복지회관 건립은 합의서 채택 때 부터 문제가 도출되었다 볼 수 있다.

92년 등록금 합의서 채택 이전부터 복지회관의 실질적인 공사, 시전 서류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것을 점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직교수들 상충부의 협상만으로 합의서를 채택한 것이다.

합의서는 그때 그때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실행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현실상황이 발발한 상태에서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면 그것은 합의서 채택이전에 고려된 상황이어야 한다. 그렇지도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다음년도 합의서 채택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건설행정과 같은 사항은 합의서 채택과정에서 실무담당부서들의 참여, 최소한 실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합의서 채택 후 실무 담당부서와 학교측 간부들은 수시로 만나 합의서 이행과정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합의서가 합의서 자체로만 서류함에 보관되어지는 것이 아닌 이행되는 합의서로서의 문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취재부〉

◀지난 29일 가정대 신축건물 기공식 장면

가정대학관기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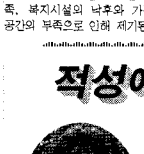
합의서 이행에 따른 점검 필요

교수승진

◆부교수=△김성태(법대·법학) △김승태(법대·행정학) △황의완(한의대·한의학) △안규석(한의대·한의학) ◆조교수=△허우성(문리대·철학) △정혜영(정경대·회계학) △한균태(정경대·신방학) △이주희(의대·의학) △송지영(의대·의학) △한정수(의대·의학) △최기운(치대·치의학) △김동현(약대·약학) △김한상(의대·서반아어) △채옥상(공대·전자공) ◆전임강사=전명관(체과대·체육학) —이상 15명—

적성에 맞는 직업 찾아야

—강경자(국문·73) 선배를 만나



그사람 지금

졸업 후 여성사업가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강경자(국문·73) 동문을 만나 보았다.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한 남자의 아내,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가정주부인 그는 또한 인테리어 소품, 공예품 제조회사인 '고운손'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는 "점제적 수입보다는 적성과 하는 일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일이 좋아서 한다면 오히려 즐겁습니다"라고 직업선택에 있어서 적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록 전공과 별 연관성이 없는 직업을 선택했지만, "제조업이 갖는 생산성과 창조성에 매력을 느낀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다.

89년 이후로 지속된 경기침체와 중소업체의 부도를 직접 보고 느껴 온 그는 올해 여름이 가장 힘들었다고.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불황을 이겨냈다고 자긍심을 드러낸다.

지난 77년 본교 국문과에 입학한 그는 평범한 것이 싫었다고.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개성있게 연출했다고 한다. 당시의 유행에 역조하여 머리를 짧게 깍고, 커다란 가죽가방을 휴대했으며, 또한 오빠의 가죽잠바를 입고 거리를 활보했다고 지난 날을 회상했다. 그러나 생을 살아오면서 평범한 것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이제 불혹을 바라보는 그는 젊은 모습으로 생활한다. 서태지의 음악을 좋아하고, 청바지를 즐겨 입는다.

그는 순수가 깃든 대화의 낭만을 추억하면서 한편으로 요즈음의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대학가 풍토를 꼬집는다.

"고액과외 등으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는 학생들이 쉽게 번 만큼 쉽게 쓰는것 같습니다. 대학 주변에 라카페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성업중인 현상은 학생들이 사치스럽고 향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태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운동에 관해서도 그는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과 활동은 높이 사지만,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제쳐놓는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했다.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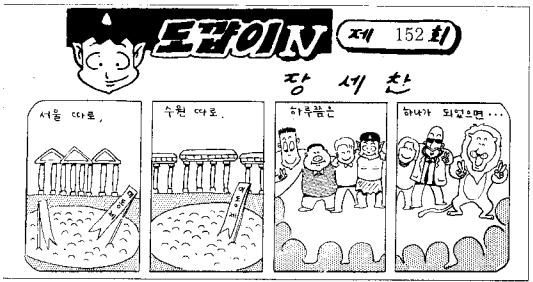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고학력과 능력이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장되는 현실을 가장 안타까워한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에 굴복하지 않고 후배들이 꼭 자기 일을 가져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다. 캠퍼스 커플이기도 한 그는 사회생활이 힘들 때 남편의 격려와 희생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며 활짝 웃는다.

끝으로 그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으며 "후배들이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해 창조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란다"며 말을 맺었다.

〈김종석 記者〉

도깨비N 제 152 회

장세찬



취재노트

"화장실에서의 거사(?)"

◇…심판기피증 만연

고환골에 대동제전의 열기가 차오르면서 갖종 경기의 승패를 가릴 심판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지지 관중시비에 휘말려 원성을 사 곱지 않은 눈총에 총알받이가 되기 십상인 심판자의 길을 모두들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雞형들! 단지 승부에만 집착해 대동의 본 뜻을 흐리는 것은 지성인을 자부하는 대학인의 모습으로서 부족하지 않을까 싶소이다.

◇…정상인은 일(?) 못봐

서천골 학생회관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학생들은 손이 무려 셋이나 있어야 한다는데.

이, 무슨 귀신같은 이야기냐고 물을지 모르나 화장실에서 거시(?)를 마친 후엔 볼볼히 내막을 알 수 있을터.

이유인즉은 화장실 문그리가 모두 그장나 일을 보는 동안에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하니 한 손으로 화장지를 챙을수는 없는 까닭.

이용자가 기형이기를 바랄 수는 없으니 이 불편함은 사용자, 관리자 모두의 관심으로 해소할 수 밖에 없지 않겠소.

◇…정의의 칼은 우리 몫

고환골의 축제분위기속에 난데없이 무림의 바람이 불어대쳤다는데.

자주경희제 시작을 알리며 선보였던 전통무예 '경당'의 바람이라고 목검을 내리꽂으며 기합을 넣는 그 모습에서 무(武)와 도(道)를 겸한 우리 선조들의 기개를 엿볼 수 있었으니.

정의의 칼을 내리치며 포효하는 그 모습은 雞형들, 바로 우리 경희청년의 모습이지 않겠소.

◇…더 큰 장학금

언론계의 정치부 기자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한 복지가가 그 이름을 드러냈다는데.

바로 'YS장학재단'의 총수가 그 사람인 즉, 장학생으로 커나온 기자들은 복지가의 가혹한(?) 뜻을 이어받아 많은 바 공심을 다한다고.

하나, 기자 나으리들, 그 대동이 진정 국민의 눈과 귀가 됨을 자처한다면 '공정보도 열망'이라는 더 큰 장학금을 받아야 하지 않겠소.

朔風

관권 출신이 만든 '용두사미'

한 사람의 죽음쯤은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못하는 현상이다. 술김에 칼 휘두르고 욕김에 불지르고, 기분 나빠 뛰어내리니 이런 사소한 일들이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는지도 모른다. 하룻며 열두살 국민학생이 부모가 제뜻대로 해주지 않는다 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생기니 사고로 인한 시시한 죽음 쯤은 관심 밖의 일이다.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이 평균 37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단번에 수십명이 목숨을 잃는 대형참사가 아니면 사회면의 한 모퉁이도 차지하기 힘들다.

그러나 어찌한 죽음이든 그 죽음의 뒤편에는 반드시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요소가 크거나 작거나 내재해 있기 마련이다. 하다못해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것도 車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데 교통문화라는 것이 올바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일이다.

오른 우리는 멀쩡히 銀馬 조교수 이단 죽음과 그 죽음에 관련된 여러가지 사건들을 신문 사회면을 통해 만나고 있다. 단순한 자살 사건으로 치부되어 버려도 좋을 이 죽음이 왜 世人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사건을 '忍事'되기 하는 요소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 죽음이 경기를 둘러싼 수많은 흑막과 그것으로 탄생하는 더 많은 사회적 병리를 암태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非理와 의혹들을 우리는 적잖이 바람결에 들어 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 풍문을 어느 정도 믿어온 것도 사실이다.

건전한 레저 스포츠로서의 경마가 아닌 시행과 도박이 춤추는 경마에 물림해 왔던 '돔'들, 거기에 휩쓸린 더 많은 보통 사람들. 게중에는 재산을 탕진한 사람, 회사공금을 횡령한 사람,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 급기야 직장 잃고 복숭까지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두 조교사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사건만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경마가 쉼패일지 하루 198억이란 막대한 돈이 그곳에 쏠린다고 한다. 전전 레포츠가 인간의 욕심에 멍들어 나락의 구렁이에 빠져버린 것이다. 사람들의 돈 욕심과 그 욕심을 충기려는 집단 압력이 두 家長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일부 언론에는 칼을 먼저 들이댄 검찰이 파문이 연쇄자살로 확산되자 오히려 꼬리잡 감추며 사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습하려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눈총을 심심찮게 받아왔던 검찰이지만 이번만은 다른 보습을 국민 앞에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情婦同盟 사기 때도 그랬고 官權선거 수사 때도 그랬다. '용두사미'를 지나쳐 본질까지 왜곡시키는 흐지부지 수사는 더이상 있었으면 좋겠다. 마사회의 수익 중 많은 부분이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간다는 오래된 풍문과 마사회의 고위 간부들이 대부분 官權출신이란 점들이 이 수사의 종결과 맞물려 또다른 의혹을 낳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은 우리 같은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 휴일 하루쯤은 가족들과 파천으로 즐겁게 나설 수 있게 하는 일도 검찰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

새로운 世界, 새로운 主役

당당한 주역으로서 세계를 개척해나갈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신입사원 모집요강

1.모집분야

모 집 분 야	인 원
상경,법행,인문기타(외국어,교육,관광,신문방송) 전자,전산,화공,화학,산업디자인,기계,전기,건축,토목,자원,산업공학,식품,수산,환경,농화학,생물	○○○명

2.전형방법
가.1차 : 서류전형
나.2차 : 필기시험(인성,사례분석) 및 면접전형. 단,1차합격자에 한함.

3.응시자격
가.모집해당학과 전공자로서 학사·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1993년 2월 취득예정자
나.군필 또는 군 면제자
다.196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석사의 경우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라.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제출서류
가.입사지원서(당그룹소정양식) …… 면접용,전산용(OMR) 각 1통
나.대학전학년 성적증명서(석사학위 이상은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 1통
다.자격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1통
라.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보훈대상자에 한함) …… 1통

5.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기간 : '92.10.8(목)~10.14(수)
매일 09:30~17:00(공휴일 제외)
나.접수 : 그룹접수처 - 한국화약그룹 사옥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현암빌딩 28층 대강당)
*그룹안내전화 ☎729-1083, 729-4300

■지방교부처

교 부 처	전화번호	주 소
제일증권 부산지점	(051)465-7533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43-1
제일증권 대구지점	(053)425-2102	대구시 중구 삼덕로2가 149-132
제일화재 광주지점	(062)223-1041	광주시 동구 대인동163 추선장학회관4층
제일증권 전주지점	(0652)72-3500	전주시 태평동1가 44-1
제일증권 대전지점	(042)284-180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9

韓國火藥그룹